



절집에 부는 인문학 바람

불광사, 조계사 등 인문학 강좌 '붐'

대학 강의실에만 머물렀던 인문학이 지역, 경제 등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문학 열풍은 이제 불교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가장 큰 사례는 사찰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강좌들의 확대다. 불광사(회주 지홍)가 운영하는 불광연구원 회원은 불광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불 강좌를 시작했다. 4월 11일 '동양과 서양의 생각의 차이'라는 주제로 이도훈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첫 강의를 시작한 이번 아카데미 강좌는 불교 사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의미가 크다. 향후 이 강좌는 가을부터 특별 강좌로 정례화 될 예정이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불교와 접목한 인문학 강좌는 불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철학 강좌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인문학 바람'은 학인스님들의 기본 교육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조계종교육원이 3월부터 정암사 승가대학 등 지방 승가대학을 대상으로 한 'e-러닝 동영상' 강의에는 철학자 강신주 씨가 대표 강사로 참여하는 '불교와 사회'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총12회로 이뤄진 강의는 자본주의 비판부터 정치철학까지 그 폭도 넓고 알차다. 서재영 연구원은 "인문학과의 조우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통해 불교학은 시대 담론을 배우고, 서양 철학적 방법론에 차운된 인문학도 동양사상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사상·인접학문 만남

불교 입체적 이해 도움

"시대적 흐름...확대 기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4월 2일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열린 조계종 화정리더십아카데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날 강의에서 도종일 경희대 명예교수는 "인문학을 통해 타인의

학제 간 연구도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오는 6월 1일 한국의 고승들과 서양철학자들의 사상을 비교하는 불교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욱 동국대 교수,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가해 원효와 하이데거, 원효와 칸트 등을 주제로 불교사상과 서양철학 간의 통섭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4월 2일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열린 조계종 화정리더십아카데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날 강의에서 도종일 경희대 명예교수는 "인문학을 통해 타인의

에 대해 불교학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학제 간 통섭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인문학은 불교를 현대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재영 연구원은 "인문학과의 조우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통해 불교학은 시대 담론을 배우고, 서양 철학적 방법론에 차운된 인문학도 동양사상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t0179@hyunbul.com



벽력같은 사자후 바람 불어오는 곳으로 가네

조계종 원로의원 활산당 성수 대종사는 도를 구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도 없었다. 대종사는 효봉 스님의 명사를 잡고 도를 내놓으라 외치고, 성철 스님의 명사를 잡고서는 "일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닦으라고 하라"며 선기를 드날렸던 선지식이었다. 사인은 4월 19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영수된 활산당 성수 대종사의 영결식 모습. 500여 만장을 앞세운 스님의 영정과 범구가 2000여 대종과 함께 대비장으로 향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매화·벚꽃도 꽃잎 떨궈 선지식 애도

15일 성수대종사 원적...통도사서 영결식 엄수

활산당 성수 대종사가 4월 15일 오전 6시경 영축총림 통도사 관음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90세, 법랍 69년. 대종사의 영결식은 19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조계종 원로 회의장으로 엄수됐다.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밀운·초우·명선·해승·현해·고우·법흥·월과·무진장·월탄·정관·안도 스님 등 원로의원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범등 스님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수 대종사의 뜻을 기렸다.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시절 인연을 함께한 후학들과 사부대중은 이 시대의 큰 도인을 잃은 슬픔을 견디기 힘듭니다. 글을 배우려면 학자를 찾아야 하듯이 도를 얻으려면 명안종사를 만나야 한다고 가르치시더니 이제 저희는 또 어떤 명안종사를 찾아 도를 얻어야 할지"라고 말했다. "위용 잃지 않은 중장" 추도 유훈 따라 '참된 보살' 서원 문도, 조의금 일체 기부 '귀감'

진제 스님은 범어를 통해 "활산당 성수 대종사는 조계종중의 종장으로 입적하시거까지 사자의 품모와 위용을 잃지 않았다"며 "세월은 흘러 늙음은 더욱 힘이 없었으나 다투 바쁜 가운데 이 일의 한가로운을 얻음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영결식은 명종과 개식으로 시작해 삼귀의례, 영결범요, 행장소개, 추도입적, 영결사, 범어, 추도사, 조사, 헌화 분향, 문도대표 인사말씀, 사후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 후 사부대중은 500여 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통도사 연화대로 대종사의 범구를 함께 이운했다. "스님 불 들어가요"라는 대중의 외침과 함께 거화가 시행됐다. 대종

사회의장 보선 스님은 "성수 대종사는 살할재한 출가자의 표상이었다"며 "우담화 꽃비 내리는 속에 활산당 성수 대종사를 보냅니다"라고 조사했다. 이날 영결식은 명종과 개식으로 시작해 삼귀의례, 영결범요, 행장소개, 추도입적, 영결사, 범어, 추도사, 조사, 헌화 분향, 문도대표 인사말씀, 사후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 후 사부대중은 500여 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통도사 연화대로 대종사의 범구를 함께 이운했다. "스님 불 들어가요"라는 대중의 외침과 함께 거화가 시행됐다. 대종

사의 육신은 "물이 흘러가니 바람이 불어오네"라는 임종계 구절처럼 지수화풍 사대로 돌아갔다. 한편, 성수 대종사 문도회(대표 태웅)는 조의금 일체를 호국연무사·차재병원 건립, 다문화가정돌봄기 위해 아름다운동행에 지정기탁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포교 활성화에 사용해 달라”

한마음선원 포교원에 3억원 기탁

(재)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이 조계종 포교원에 후원금 3억 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은 4월 18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등이 참석했다. 포교원은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을 포교콘텐츠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포교원은 "한마음 선원의 기탁금은 앞으로 선원과 협의하여 콘텐츠활성화 사업 등의 포교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교원은 기탁금을 별도로 관리해 사업 집행 과정의 시작과 진행 과정 마무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한

마음선원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5대 포교원에 이어 이렇게 6대에도 포교기금을 쾌척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포교 발전의 자양분이 되어 세상에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소중히 잘 사용할 것"이라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잘 써 달라"는 짧은 한마디 말로 화답했다. 한마음선원은 지난 2007년에도 조계종 포교원에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 등 포교목적사업 후원기금으로 3억 원을 기탁한 바 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사진 왼쪽)이 4월 18일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 가운데)에게 집무실에서 포교 후원기금 3억 원을 기탁했다.

전법단 출범 2주년 토론회 4월 30일 국제회의장서

조계종 포교원이 전법단 출범 2주년 기념법회 및 전법교화 대중토론회를 갖는다. 행사는 4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전법의 교학적 이념과 현대적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1부에서는 전법단 출범 2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2부에서 >발제강연 전법단 활동성공사례 및 포교네트워크 전략 필요성 >전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 >현대사회에서 전법의 방향과 내용 등이 이어진다. 포교원은 "전법단 출범후 2년간의 활동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고자 마련된 행사"라고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885호 CONTENTS

총단 7대 종교지도자 대화의 장	2
진각종 춘기 스승 강공 봉행	
종합 템플스테이 10년 평가와 과제	3
시방세계 은정 제1회 청소년 캠프	5
기획시리즈 조계종 50년 핵심과제 @역경	9
마음·명상 뇌졸중이 내게 안겨준 통찰	27



가희시리즈 조계종 50년 핵심과제 @역경

마음·명상 뇌졸중이 내게 안겨준 통찰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어색 무늬등

판각 무늬등

주름등

왕조기린전등

칼라보카시등

용가등

무늬등

극락영산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

무늬등